



미 증시, 은행주들의 실적 결과 등을 반영하며 혼조세

미국 증시 리뷰

17 일(화) 미국 증시는 뉴욕 제조업 지표 쇼크에도, 골드만삭스(-6.4%) 및 모건 스탠리(+5.9%)의 엇갈린 실적 결과, 테슬라(+7.4%)발 호재 등 업종 내 개별 재료에 영향을 받으면서 혼조세로 마감 (다우 -1.14%, S&P500 -0.2%, 나스닥 +0.14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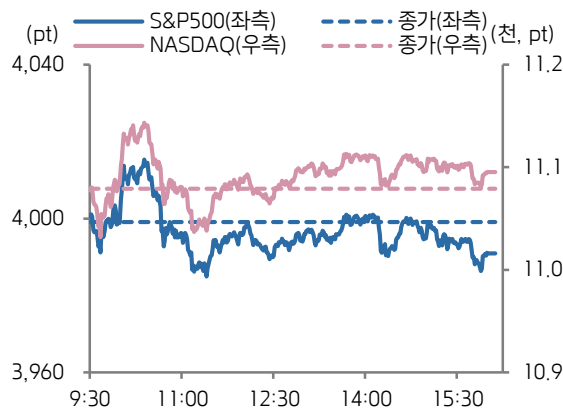
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2022년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% 기록,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 5.5%에 미달. 특히 2022년말 기준 중국의 인구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은 이례적이며, 인구 감소, 부채 누적 등 구조적 요인이 겹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전망 제기.

미국 1월 뉴욕 제조업 활동지수는 -32.9(예상 -7.0, 전월 -11.2) 기록하며 예상치 하회, 2020년 중반 이후 최저치 기록. 수요 감소에 따라 신규주문지수는 12월 -3.6에서 1월 -31.1, 선적 지수는 5.3에서 -22.4로 급감. 한편, 지불 가격 지수는 50.5에서 33.0으로 감소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감소.

독일 1월 ZEW 현재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는 전월 -61.4에서 -58.6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, 향후 경기기대지수는 16.9(예상 -15.0, 전월 -23.3)로 발표되며 4개월 연속 상승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고치 기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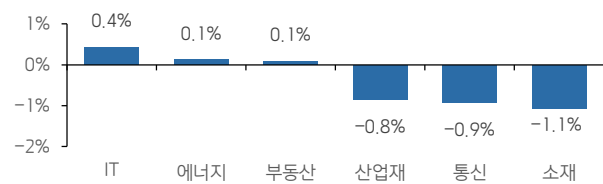
업종별로 IT(+0.4%), 에너지(+0.1%), 부동산(+0.1%) 업종 강세, 소재(-1.1%), 통신(-0.9%), 산업재(-0.8%) 업종은 약세. 골드만삭스(-6.44%)는 4분기 투자 은행 및 자산 관리 매출이 급감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발표. 반면 모건스탠리(+5.91%)는 투자은행 부문손실에도 금리 인상과 은행 대출 증가에 따른 순이자 수익 증가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 상회하며 주가는 상승. 테슬라(7.43%)는 가격인하 이후 미국에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로 상승, 엔비디아(4.75%) 역시 AI와 클라우드 분야 수혜를 근거로 투자의견이 상향된 영향으로 강세 보이며 나스닥 상승을 주도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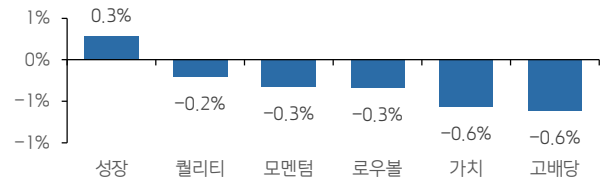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코스피	2,379.39	-0.85%	USD/KRW	1,239.01	+0.25%
코스피 200	313.75	-0.72%	달러 지수	102.37	+0.17%
코스닥	709.71	-1%	EUR/USD	1.08	-0.3%
코스닥 150	983.20	-1.8%	USD/CNH	6.77	+0.39%
S&P500	3,990.97	-0.2%	USD/JPY	128.17	-0.32%
NASDAQ	11,095.11	+0.14%	채권시장		
다우	33,910.85	-1.14%	국고채 3년	3.481	+3.6bp
VIX	19.36	-0.67%	국고채 10년	3.442	+7bp
러셀 2000	1,884.29	-0.15%	미국 국채 2년	4.201	-3.2bp
필라. 반도체	2,807.48	+0.24%	미국 국채 10년	3.544	+4bp
다우 운송	14,357.96	-0.04%	미국 국채 30년	3.655	+4.4bp
유럽, ETFs			원자재 시장		
Eurostoxx50	4,174.33	+0.42%	WTI	80.92	+1.33%
MSCI 전세계 지수	638.18	+0.02%	브렌트유	86.54	+2.46%
MSCI DM 지수	2,735.88	+0.01%	금	1910.8	-0.57%
MSCI EM 지수	1,030.91	+0.1%	은	24.07	-1.26%
MSCI 한국 ETF	62.25	-0.27%	구리	423.45	+0.44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	MSCI 한국 지수 ETF 는 0.27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0.56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06% 상승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236.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주요 체크 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골드만삭스의 주가 급락 vs 모건 스탠리의 주가 급등이 국내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 2. BOJ의 통화정책회의 이후 외환시장 움직임 및 국내 외국인 주식 순매수 패턴 변화 3. 전일 테슬라 오더컷 루머 등으로 급락했던 국내 2차전지주들의 주가 반등 여부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한국이나 미국 등 주요국들의 4 분기 실적시즌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에 금번 실적시즌 부진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립 수준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. 그러나 컨센 하회로 주가가 급락한 골드만삭스(-6.4%)와 컨센 부합으로 주가가 상승한 모건스탠리(+5.9%)의 사례가 시사하듯이, 같은 업종 내 개별 기업들간 실적 결과에 따라 주가 반응과 일중 변동성이 큰 폭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개별 주식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.

매크로 상 불확실성(ex: 연준 긴축, 경기 침체 등)은 상존하지만 동시에 위험 자산에 베팅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(ex: CNN 의 Fear & Greed Index 는 66pt 로 Greed 영역 진입), 시장 참여자들은 이벤트 결과 확인 후 단기 트레이딩을 통한 수익률 확보 전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임. 따라서 통상적으로 실적시즌에는 실적 발표 전부터 기대감으로 사전 베팅에 나서는 전략이 유효했지만, 현재의 상황을 고려 시 실적 결과 확인 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트레이딩 전략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.

한편, 매크로 관점에서 시장이 고민하고 대응해야하는 부분은 금일 발표 예정인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YCC(수익률곡선통제, 현재 +/- 0.5%로 설정) 폐기 혹은 조정 여부가 될 것. 금번 회의에서 정책 변경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블룸버그 서베이 상 컨센서스로 형성되고 있으나, 가격 형성에 참여하는 실제 시장 참여자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상황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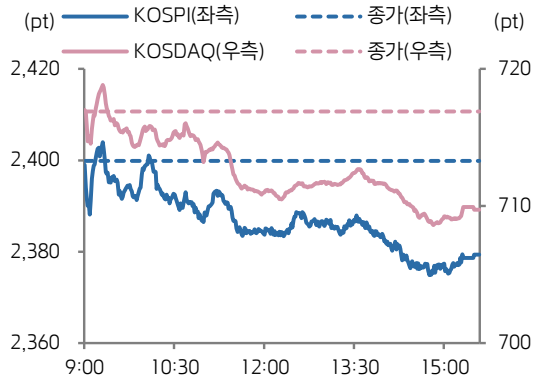
일례로, 현재 국채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본의 10 년물 국채금리는 0.50~0.54% 레벨에서 형성이 되고 있지만, 스왑시장에서 거래되는 10 년물 금리는 0.9% 레벨 이상을 형성하면서 양 지표 간 탈동조화가 진행되고 있음. 또한 엔/달러 환율 옵션의 변동성도 52pt 로 2020 년 3 월 판데믹(46pt) 이후 역대급으로 치솟는 등 시장 참여자들은 BOJ의 정책 변경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. 이들의 정책 행보에 따라, 엔화, 달러화 등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글로벌 자금흐름이 기존 패턴과 상이해질 수 있는 만큼, 금일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.

전일 국내 증시는 중국의 실물경제지표 서프라이즈에도, 차익 실현 물량 출회, 업종 간 빠른 순환매 충격 등으로 하락 마감(코스피 -0.9%, 코스닥 -1.0%).

금일에는 전일 주가 하락 되돌림 현상이 출현하겠으나, 전일 미국 증시의 방향성 부재 뉴욕 제조업 지수 급락(-32.9, 컨센 -8.1) 부담 속 BOJ 회의 경제심리에 영향을 받으면서 장중 변동성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. BOJ 회의 이후의 엔/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원/달러 환율 및 이와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는 외국인 순매수 패턴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, BOJ 회의 결과 전후로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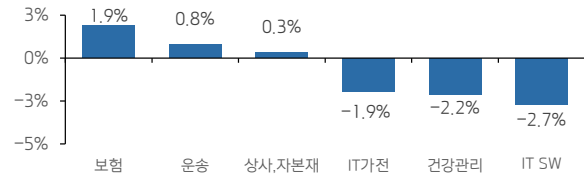
업종 관점에서는 전일 LG 에너지솔루션(-4.7%), 엘엔에프(-3.1%) 등 2 차전지주들이 테슬라발 오더컷 루머, 실적 부진 우려 등으로 주가가 급락했으나,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(+7.4%)가 중국 판매량 호조로 큰 폭의 주가 반등을 시현했다는 점은 금일 국내 2차전지주들의 투자심리 회복에 기여할 전망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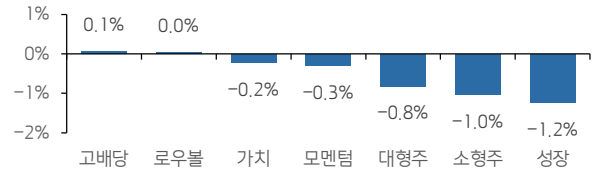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F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